

광주시향 지휘봉 잡은 구자범씨 인터뷰

“5·18 광주 아프고 애뜻한 감정 찾아가는 음악회 활성화 하겠다”

광주시향교향악단이 1976년 창단 후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상임지휘자 구자범(39)이 있다. 구 씨가 국립하노비오페라극장 상임지휘자 출신이라는 점과 연봉 10만달러라는 계약조건이 화제의 초점이다. 기존 지휘자의 연봉은 6천 200만원, 그만큼 광주시향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광주시와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구 씨가 2일 광주문화회관에서 광주시향 운영계획 등을 밝혔다.

4월 30일 첫 공연 말러 교향곡 1번 ‘거인’

-독일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광주행을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텐데.
-독일에서 15년간 살면서 항상 한국에서 한국사람과 한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그러던 차 광주에서 제안이 왔다. 내가 89학번인데 광주라는 이름을 들으면 광주학생이 먼저 떠오르는 세대다. 아프고 애뜻한 감정이랄까, 내 나라에서 언젠간 하고 싶었던 일을 의미 있는 도시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된 게 행복하다. 인터뷰 후 5·18묘역에 다녀올 생각이야.
-계약 조건이 파격적이다.
-시로부터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조레 때문에 계약서에는 명시할 수 없어 구두로 약속했다. 하노비오페스트라와는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이 달라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파기했다.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고 이번엔 까다로운 정도로 다짐을 받았다. 기획팀 신철을 요청했고 단원 선발 등 많은 점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연주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
-4월 30일 첫공연은 말러 교향곡 1번 ‘거인’이다. 매우 어려운 곡이다. 처음 지휘자와 단원들이 만나는 곡이만큼 다른 느낌을 갖고 집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선택했다. 아마도 연습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초기에는 앙상블을 다듬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 광주학생 30주기는 ‘제대로’ 된 연주를 보여주고 싶다.
-신입지휘자에 대한 클래식 마니아들과 시민들의 기대치가 아주 높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활성화하겠다. 대학교나 교도소에서도 연주하고, 만우절에는 코믹 연주를 해도 재미있을 것 같다. 클래식팬들을 위해서는 정기연주회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정통을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 일정 정도 토대를 쌓은 후 점차 다양한 레퍼토리를 만들어갈 것이다.



구자범은 누구?
-1970년 서울 생
-연세대 철학과 졸업
-독일 만하임 음대 지휘과 수석 졸업
-독일 하겐시립극장, 다름슈타트 국립극장 지휘자 역임
-독일하노비오페라극장 수석지휘자 역임

“관객들에 고급스러운 놀이 즐길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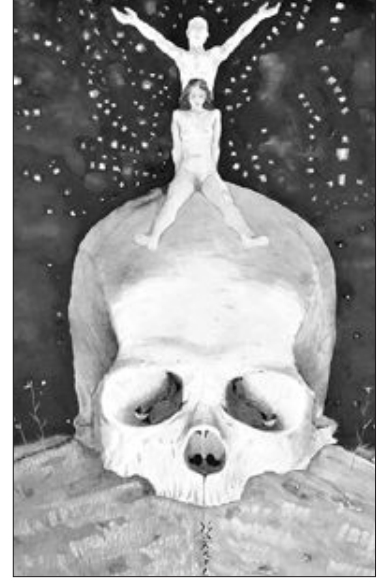
-단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음악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하겠다. 열려 있는 사람이라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지휘자가 지휘대에 올라가는 건 단원을 내려다 보는 게 아니라, 단원들이 나를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케스트라에서 잘하는 사람 몇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못하는 사람을 일정 수준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게 지휘자의 역할이고.
-클래식은 어려운 음악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오케스트라 공연은 고급스러운 놀이다. 좀 더 많은 관객들에게 고급스러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사람들은 현실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립단체는 영리 목적이 아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이 있는 하노비오 광주를 오가면서 생활해야 하는데.
-3월엔 광주에 머물고 4월엔 독일에서 지휘를 한다. 아내는 첫사랑이 있다. 16년을 기다렸고 두 아이를 함께 얻었다. ‘모든 감각적인 것에 충실하자’가 모토다(웃음). 담배도, 술도 즐긴다. 지휘자가 되지 않았다면 소믈리에가 되고 싶을 정도로 포도주를 좋아하고 수업도 받았다.
-‘베토벤 바이러스’의 감마나 ‘제2의 정명훈’으로 불리기도 한다.
-감마에와는 독일에서 공부한 것, 나이, 지방 오케스트라를 맡은 것만 비슷하다(웃음). ‘제2의 정명훈’은 틀리면 참피하고 싫다. 정명훈은 정말 세계적인 지휘자 아닌가. 또 추구하는 음악 색깔도 다르다. 그냥 나 자신이다.
/김대성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립미술관 새 소장품 36점 공개

4일~5월17일 ‘신소장품 2008’ ... 국내외 유명 작가 작품 전시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 지난해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소장품 36점을 첫 공개한다. 4일~5월17일까지 시립미술관 1·2전시실.
‘신소장품 2008’을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윤예근, 양계남, 이돈홍, 정광주, 진양욱, 최석운, 최향, 이강하, 도수연, 종비아오, 원륜 등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에 소개되는 소장품의 특징은 5·18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대표작품과 중국 인기 작가 등 유명 작가의 작품이 많은 점이다. 또 지역 작가 위주의 작품 구입에서 벗어나 국내 유명 작가의 고가 작품을 대거 소장한 점 등도 눈에 띈다.
강연균 ‘하늘과 땅 사이’는 해를 위에 올라 탄 옷을 벗은 남녀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죽음의 땅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민중의 강한 생명력을 표현했다.
또 고 진양욱(1932~1984·전 조선대 미술대 학장) 화백의 100호 이상 대작 ‘사랑의 빛’ ‘하영’ ‘성산포 기행’ 등 3점도 함께 전시된다. 스텐지로 물



강연균 ‘하늘과 땅 사이’
진양욱 ‘사랑의 빛’
감을 찍어 그린 이들 작품은 호당 거래가격이 120만~150만원에 달한다. 중국 현대 미술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는 종비아오의 ‘제생’, 원륜의 ‘비관’ 등도 함께 출품됐다. 한편 시립미술관은 지난해 작품구입심의위원회를 통해 작품 26점을 구

‘광주학생독립운동-타오르는 횃불’ 출간
광주일보에 연재한 참가자들 증언 엮어
광주학생독립운동 80주년을 기념해 당시 학생운동 참가자의 증언을 생생하게 엮은 책 ‘광주학생독립운동-타오르는 횃불’(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 펴냄)이 출간됐다.
이 책은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직접 참가한 7명이 1979년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에 ‘광주학생독립운동 50주년 특별기획-횃불 반세

광주·전남 불교계 ‘생명나눔 운동’
행복한 나눔의 1만배 특별정진기도
각각, 골수기증 등 범사회적으로 나눔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사)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치남)는 ‘생명나눔 실천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나눔운동’을 벌이고 있다.
생명나눔 광주전남본부는 부처님 출가 제일이인 4일부터 11일까지를 실천주간으로 정하고 원각사, 증심사, 문빈정사, 연화사 등 주요사찰에서 소아암·백혈병 어린이 치료기금 모금을 위한 ‘행복한 나눔의 1만배 특

영화안내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메가박스, 엔터시네마, 콜롬버스시네마, 씨너스전대, 하미시네마, 제일시네마
1관 미션보이 (15세) / 2관 작전 (18세) / 3관 말리어나 (12세) / 4관 그는당신에게반하지않았다 (15세) / 5관 핸드폰 (18세) / 6관 문프린세스(전세) / 7관 언데드 (15세) / 8관 워낭소리 (전세) / 9관 인터내셔널 (18세)
www.megabox.co.kr